



모유팩 모유수유아 어머니와 인공수유아 어머니간의 모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비교* - NICU의 저출생체중아를 중심으로 -

김영혜¹⁾ · 최정녀²⁾ · 조영란³⁾ · 주현옥⁴⁾

1)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동아대학교병원 간호사
 3)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4)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bstract =

Comparis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Breast Milk in Sanitary Pack Feeding Infant's Mothers and Bottle Feeding Infant's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 NICU*

Kim, Young-Hae¹⁾ · Choi, Jung-Nyou²⁾ · Cho, Young-Ran³⁾ · Ju, Hyeon-Ok⁴⁾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Nurse, Dong-A University Hospital
 3) Full-time Researcher,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maternal attachment and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mother who feeds the child with mother's milk in sanitary pack by a nurse instead of her and mother who feeds the child with artificial milk.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mothers of premature baby who was in NICU and can not be fed with mother's milk directly. In the sample, 21 mothers were the breast feeding group and 20 were the bottle feeding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3, 2004 to November 2, 2005,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0.0. **Results:** The degree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the breast milk feeding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ottle feeding group. In accord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 was found in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both breast feeding group and bottle feeding group. **Conclusion:** More systematic nursing mediation is required for the lactation of mother's milk in sanitary pack is planned to do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mother

주요어 : 애착, 모성역할자신감, 모유수유, 인공수유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for two years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교신저자 : 조영란(E-mail: youngrancho@yahoo.co.kr)

투고일: 2006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2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Young-Ran(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1-10, Ami-dong, Seo-gu, Busan, 602-739, Korea

Tel: 82-51-240-7769 Fax: 82-51-248-2669 E-mail: youngrancho@yahoo.co.kr

and the child, which has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th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fter hospitalization.

Key words : Attachment, Maternal role confidence,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임신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실제적인 모애관계의 형성은 아기의 출생 후에야 이루어지게 된다. 출생 직후 신생아기의 모애상호작용 경험은 애착 발달에 있어서 민감하게 작용하며 이런 인생초기의 경험은 신생아기 이후의 성장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애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Bull & Lawrence, 1985). 이러한 신생아기의 초기 환경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의료인 혹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 환경이며 이는 장차 모애관계로 발전하게 된다(Wong, 2003). 특히 모애착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인간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Bowlby, 1983; Hangson, 1989).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 입원 및 신생아집중치료실(이하 NICU)의 입원 경험은 이들 부모나 가족에게 불안, 죄책감, 절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특히 저출생체중아를 분만한 어머니는 모성으로서의 자존심의 상실, 죄책감, 내적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 애착과 모성 자신감을 해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모애상호작용을 왜곡시키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모애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발달을 해치게 된다(Affonso, Hurst, Haller, & Lynch, 1992).

모애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초기 수유상황이 중요시되는데 이때 모아가 접촉을 통해서 모애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모유수유를 통해 영아는 그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반응함으로써 영아와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작용 양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Taylor, 1981). 그러나 모유영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인공영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러한 경우 어머니로 하여금 부족감이나 자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Hong, 2003).

또한 산후 첫 2개월간은 모애의 초기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모애착이 형성되고, 어머니는 영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영아의 신체적 건강 및 안위와 관련된 돌보기 활동과 수유, 수면, 배설, 자세유지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과정의 조정을 돕는 것을 포함하는 모성역할 획득의 실제적 지표인 영

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간으로서 모애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이며(Walker, Crain, & Thompson, 1986), 특히 분만직후 1시간이내의 초기접촉에서 2주까지의 기간은 어머니가 임신 중의 영아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실제 영아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모애관계의 기초가 설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모애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Klaus & Kennell, 1982). 그러나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고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모유팩을 이용한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것은 모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긍정적인 모애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저출생체중아와 가족을 위한 간호의 일차적인 목표이며,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NICU에서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애착 형성 및 양육 시어머니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체중아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출생체중아와 정상아간의 모애상호작용(Kim, 1997), 영아돌보기 자신감, 어머니의 역할전환에 대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Kwon & Han, 1991; Paik, 1990) 미숙아와 어머니간의 모애착(Ahn & Kim, 2005)과 모성역할자신감에 대한 연구(Lee, 1999)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NICU에 아기를 입원시켜야 하는 현실은 어머니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설사 모유가 분비된다고 해도 직접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NICU의 실무에서는 모애착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의 일환으로 비록 모아가 떨어져 있더라도 1일 2회의 면회시간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직접 모유수유 또는 분유를 먹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모유를 짜서 모유팩에 보관했던 것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져오게 하여 하루에 네 번 이상 간호사가 간접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분유만을 먹이는 인공수유 어머니군에 비해 애착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NICU에 입원한 신생아의 수유방침을 정하는데 근거자료가 필요하고, 또한 긍정적인 모애관계수립에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NICU의 근거중심 간호실무를 평가하기 위해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와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간의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NICU 입원환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에 의한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와 분유만을 수유한 인공수유 어머니간의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유팩 모유수유 어머니와 인공수유 어머니간의 모아애착 정도를 비교한다.
- 모유팩 모유수유 어머니와 인공수유 어머니간의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를 NICU에 입원시키고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와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의 모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1월 2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부산시 D대학 병원의 NICU에 일주일 이상입원한 1,000g이상 2,000g미만의 저출생체중아의 어머니 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어머니들로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41명이었다. 수유형태에 따라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는 21명이었고,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는 20명이었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는 저출생체중 외에 기타 합병증이나 기형이 없는 아기를 분만한 산모로서, 산후 합병증이 없고, 다른 질병과 모유수유 장애요인이 없으며, 수유형태와 관계없이 아기를 규칙적으로 1주에 1회 이상 방문한 자로 하였다.

연구도구

- 모아애착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Cropley, Lester & Pennington(1976)에 의해 제작된 Maternal Attachment Tool(MAT)을 Kim(200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산모가 신생아와 접촉했을 때 관찰되어지는 행동을 공식화한 측정도구로 산모가 신생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산모의 행동은 신생아의 외모와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10개 문항,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 12개 문항을 합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아애착은 연구자가 퇴원이 확정된 주중에 어머니의 수유행위를 보조하면서 관찰하여 0점, 1점으로 채점하였다.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2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모성역할자신감 측정도구

Pharis(1978)의 모성역할자신감 측정도구 13개 문항을 토대로 Jang(2004)이 번안한 35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안위와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 위생관리,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건강과 질병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의 범위는 “거의 자신이 없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자신이 있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최저 35점부터 최고 17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자료수집 절차

- 모유팩 준비단계

저출생체중아가 입원하게 되면 어머니와 보호자들에게 가정에서 짜온 모유팩을 이용하여 간호사가 모유수유를 대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생아실 입구 복도에는 모유수유에 관한 여러 가지 안내책자를 진열해 둠으로써 모유수유를 홍보하였다.

모유수유를 선택한 보호자 및 어머니에게는 모유 수집 시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설명하고, 한 번에 짜낸 모유는 반드시 한 팩에 보관해야 하며 비록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합쳐서는 안 되며, 짜는 즉시 날짜, 시간을 기입해서 바로 냉동 보관하게 하였다. 아기와 의 면회는 하루에 두 번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병원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호자가 전해준 모유팩은 즉시 냉동보관 시키고, 혹시 운반도중 해동, 파손, 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유는 폐기하였다.

● 모유수유군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가져온 모유팩을 NICU 간호사가 전달받아 이를 우유병에 옮겨 아기에게 대리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것이다. 일일 수유횟수는 총 8회로 세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비록 모유수유군 이라고 하더라도 모유한번 분유한번으로 모유와 분유를 번갈아가며 각각 4회씩 먹었다. 이때 어머니가 모유팩을 직접 가져온 경우 간호사의 모유수유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고, 아기의 체중이 1,500g이상이 되면 어머니가 원할 경우 직접 모유수유를 시도하게 하였다.

● 인공수유군

모유팩 모유수유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아기에게 NICU 간호사가 하루 세 시간 간격으로 8회 인공수유를 실시하였으며, 아기의 체중이 1,500g이상이 되면 어머니가 원할 경우 직접 인공수유를 시도하게 하였다.

● 연구보조자의 훈련

본 연구자 외에 2명의 간호사가 연구보조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에게도 논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측정도구의 기준을 숙지하게 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위해 관찰자훈련을 통해 관찰자간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는데,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각각 다섯 사례에 대해 3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모아애착 정도를 평점하였다. 그리고 Kappa 계수를 산출하여 얻어진 관찰자간 일치도 $k = .84$ 이었다.

● 자료수집과정

신생아의 신체 및 발달특성, 어머니의 분만관련 특성은 저출생체중아의 입원과 퇴원 당시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조사했으며,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퇴원당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수유형태와 관련없이 어머니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찰자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모아애착의 측정은 아기의 퇴원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그 주중에 어머니가 직접 모유수유 또는 인공수유를 실시할 때 수유실에서 어머니의 수유행위를 보조하면서 약 30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성역할자신감은 아기 어머니의 수유행위가 끝난 후에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분만관련 특성과 저출생체중아의 신체 및 발달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처리하였다. 모유팩 모유수유아 어머니와 인공수유아 어머니간의 동질성

검정은 t-test와 χ^2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유팩 모유수유아 어머니와 인공수유아 어머니 사이의 모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t-test로 분석하였고,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모성역할자신감의 정도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모유수유군 32.7세, 인공수유군 33.9세 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모유수유군 47.6%, 인공수유군 50.0%, 대졸이상이 모유수유군 52.4%, 인공수유군 50.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수입은 모유수유군 235만원, 인공수유군 261만원으로 유사하였다. 모유수유군 81.0%, 인공수유군 100%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은 모유수유군 4년 7개월, 인공수유군 4년 8개월로 유사하였다. 분만 후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경우가 모유수유군 61.9%, 인공수유군 70.0% 였으며, 임신계획을 한 경우가 모유수유군 71.5%, 인공수유군 85.0%로 대부분이 계획된 임신이었다. 영아와의 첫 접촉 시기는 1일 이후 신생아실에서가 모유수유군 52.4%, 인공수유군 70.0%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저출생체중아와 어머니의 조기 접촉이 지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상관없다가 모유수유군 52.4%, 인공수유군 35.0%인 반면에 남자아기라고 대답한 경우도 모유수유군 42.9%, 인공수유군 45.0%로 높게 나타났다. 아기의 성별에서는 남자가 모유수유군 52.4%, 인공수유군 55.0%, 여자가 모유수유군 47.6%, 인공수유군 45.0%로 남녀 간에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분만실 입원당시 분만 후 수유계획은 모유수유군 81.1%, 인공수유군 65.0%로 모유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 유산이나 조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모유수유군 42.9%, 인공수유군 35.0% 였다<표 1>.

저출생체중아의 신체 및 발달특성으로 먼저 채태기간을 살펴보면, 모유수유군 34주 5일, 인공수유군 33주 7일로 나타났고, 출생 시 체중은 모유수유군 1,8kg, 인공수유군 1,7kg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위는 모유수유군 30.0cm, 인공수유군 30.1cm였고, 흉위는 모유수유군 26.3cm, 인공수유군 26.2cm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장은 모유수유군 42.3cm, 인공수유군 42.2cm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표 2>.

이상의 특성에 대하여 모유수유 어머니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유사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1)

특 성	구 분	모유수유군(n=21)		인공수유군(n=20)		t or χ^2	p
		실수(%)	M±SD	실수(%)	M±SD		
연령(세)		32.7± 3.3		33.9± 2.9		1.475	.232
교육정도	고졸	10(47.6)		10(50.0)		0.020	1.000
	대졸이상	11(52.4)		10(50.0)			
가족월수입(만원)		235.2±82.7		261.0±109.9		.724	.400
직업	있다	4(19.0)		0(00.0)		4.221	.107
	없다	17(81.0)		20(100)			
결혼기간(년)		4.7± 3.3		4.8± 4.5		.007	.933
분만후 부부관계	더좋아졌다	13(61.9)		14(70.0)		1.706	.426
	변화가 없다	8(38.1)		6(30.0)			
임신계획	예	15(71.5)		17(85.0)		2.267	.322
	아니오	6(28.5)		3(15.0)			
첫 접촉시기	1일이내신생아실	10(47.6)		6(30.0)		1.336	.341
	1일이후신생아실	11(52.4)		14(70.0)			
기대했던 성별	남자	9(42.8)		9(45.0)		2.666	.264
	여자	1(4.8)		4(20.0)			
	상관없음	11(52.4)		7(35.0)			
아기성별	남	11(52.4)		11(55.0)		0.028	.867
	여	10(47.6)		9(45.0)			
수유계획	모유	17(81.0)		13(65.0)		4.655	.098
	분유	0(0.00)		4(20.0)			
	혼합	4(19.0)		3(15.0)			
유산,조산 경험	있다	9(42.9)		7(35.0)		0.302	.860
	없다	12(57.1)		13(65.0)			

<표 2> 저출생체중아의 신체 및 발달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1)

특 성	모유수유군(n=21)		인공수유군(n=20)		t	p
	실수(%)	M±SD	실수(%)	M±SD		
재태기간(주)		34.5±1.8		33.7±1.1	2.944	.094
출생체중(kg)		1.8±0.2		1.7±0.3	1.553	.220
출생시 두위(cm)		30.0±2.9		30.1±1.9	.001	.973
출생시 흉위(cm)		26.3±2.6		26.2±2.2	.047	.829
출생시 신장(cm)		42.4±3.3		42.2±2.5	.047	.830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아애착 비교

모유팩을 이용한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아애착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유수유군에서는 모아애착 점수가 20.7점으로 인공수유군의 15.0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90.718$, $p=.000$). 즉,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 보다 모아애착 정도가 높았다.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의 모아애착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총 22문항 중 14개 문항에 대해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에 비해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표 3>.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성역할자신감 비교

모유팩을 이용한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간의 모성역할자신감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유수유군에서는 모성역할자신감 점수가 103.1점으로 인공수유군의 85.2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3.310$, $p=.001$). 즉,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보다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았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 본 결과 총35 문항 중 20개 문항에서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보다 높은 모성역할자신감을 나타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군에서는 '분만 후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t=5.855$, $p=.026$)와 '출생 시 체중이

<표 3>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애착 비교

(N=41)

특 성	모유수유군(N=21)	인공수유군(N=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기의 성(sex)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표현한다	1.0±0.2	0.6±0.5		
아기의 크기(size)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표현한다	0.7±0.5	0.3±0.5		
아기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1.0±0.0	1.0±0.0		
아기의 신체에 관해 질문한다	1.0±0.0	1.0±0.0		
신체기능(울음, 배변, 배뇨, 수면 등)에 관해 질문한다	1.0±0.0	1.0±0.0		
인간의 특성(볼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등등)과 관련하여 말한다	1.0±0.2	0.7±0.5		
가족원의 특성(누구와 닮은 것 같은지 등)과 관련하여 말한다	0.7±0.5	0.3±0.4		
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한다	1.0±0.0	1.0±0.0		
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사실적으로 평한다	1.0±0.0	0.5±0.5		
아기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1.0±0.2	0.5±0.5		
이야기하거나 노래한다	0.8±0.4	0.4±0.4		
이야기할 때 이름을 사용한다	0.7±0.5	0.4±0.5		
얼굴을 마주 보는 자세를 한다	1.0±0.0	0.8±0.4		
눈뜬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1.0±0.0	0.6±0.5		
눈을 뜨도록 자극한다	1.0±0.2	0.6±0.5		
사지나 머리를 만진다	1.0±0.0	0.8±0.4		
몸체를 만진다	1.0±0.0	1.0±0.0		
손끝으로 만진다	1.0±0.0	1.0±0.0		
손가락으로 쓰다듬는다	1.0±0.0	1.0±0.0		
손가락으로 만진다	1.0±0.0	1.0±0.0		
끌어당긴다	1.0±0.0	0.8±0.4		
접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1.0±0.0	0.4±0.5		
합 계	20.7±1.0	15.0±2.5	90.718	.000

<표 4>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성역할자신감 비교

(N=41)

내용	모유수유군(N=21)	인공수유군(N=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유 중 편안하게 아기를 안는 것	3.2± 0.5	2.6± 0.8		
아기가 배고픈 것을 알아내는 것	3.0± 0.6	2.5± 0.7		
배부른 것을 알아내는데 것	2.9± 0.7	2.5± 0.7		
수유 후 트림을 시키는 것	3.2± 0.8	3.0± 0.8		
어떤 간격으로 수유해야 하는지	3.0± 0.6	2.5± 0.8		
아기에게 적합한 수유형태를 결정	3.0± 0.7	2.4± 0.9		
젖꼭지를 청결히 관리 하는것	3.3± 0.5	3.0± 0.9		
아기의 적절한 수유 량을 아는 것	2.8± 0.6	2.3± 0.7		
수유준비에 대해	3.0± 0.5	2.6± 0.8		
우유의 흐름을 적절히 하는 것	2.7± 0.6	2.1± 0.8		
젖이 잘 돌게 하는 방법에 대해	2.6± 0.6	2.0± 0.8		
아기가 젖을 넘길 때 어떻게 하는지	2.6± 0.6	2.1± 0.8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에 대해	2.9± 0.8	2.4± 0.9		
기저귀를 능숙하게 갈아주는 것	3.4± 0.8	2.7± 0.7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	3.5± 0.7	2.7± 0.7		
외부온도에 따라 적절하게 옷을 입히는 것	3.0± 0.7	2.7± 0.9		
배꼽을 돌보는 것	3.0± 0.8	1.9± 0.8		
아기가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는지	2.7± 0.6	2.0± 0.8		
아기의 손톱을 깎아주는 것	2.9± 0.7	2.3± 0.7		
아기의 눈,코,귀를 청결히 하는 것	2.9± 0.6	2.3± 0.7		
아기와 함께 놀아주는 것	3.3± 0.7	3.0± 0.7		
아기가 아픈 것을 알아내는 것	2.6± 0.6	2.1± 0.6		
병원에 가야하는 이상증상을 알아내는 것	2.6± 0.6	2.0± 0.6		
황달이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것	2.4± 0.6	2.1± 0.8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3.1± 0.5	3.1± 0.5		
기저귀발진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3.1± 0.6	2.9± 0.5		

<표 4>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성역할자신감 비교(계속) (N=41)

내용	모유수유군(N=21)	인공수유군(N=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아기의 체온을 재는 것에 대해	3.2± 0.7	2.8± 0.9		
아기를 잠재우는 것에 대해	3.1± 0.7	2.8± 0.6		
아기가 울 때 이유를 알아내는 것	2.8± 0.7	2.3± 1.0		
아기가 울 때 울음을 그치도록 달래 주는 것	2.9± 0.8	2.5± 0.8		
아기가 딸꾹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3.1± 0.7	2.3± 0.8		
아기가 사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2.6± 0.7	2.1± 0.9		
아기상태를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것	2.9± 0.5	2.6± 0.9		
아기에게 적합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것	3.0± 0.7	2.7± 0.8		
아기의 대변 형태가 정상인지에 대해	3.0± 0.4	2.3± 0.7		
합 계	103.1±12.0	85.2±18.9	13.310	.001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애착 정도 (N=41)

일반적 특성	구 분	모유수유군(n=21)	t or F	p	인공수유군(n=20)	t or F	p
		(M±SD)			(M±SD)		
연령(세)	25 ~ 29	20.7±1.3	.018	.982	16.0±0.0	.552	.586
	30 ~ 34	20.6±1.0			15.6±2.8		
	35 ~ 39	20.7±0.8			14.4±2.3		
교육정도	고졸	20.9±0.9	1.120	.303	14.6±2.3	.798	.384
	대졸이상	20.5±1.0			15.6±2.7		
가족월수입(만원)	100 ~ 199	21.0±0.0	.931	.412	13.5±1.9	1.059	.369
	200 ~ 299	20.4±1.1			15.4±2.8		
	300이상	21.0±0.8			15.6±2.3		
직업	있다	21.0±0.8	.576	.457	0.0±0.0		
	없다	20.6±1.0			15.1±2.5		
결혼기간(년)	0 ~ 4	20.6±1.0	.825	.454	15.2±2.6	.635	.542
	5 ~ 9	20.5±1.0			16.5±3.5		
	10이상	21.5±0.7			14.2±2.0		
분만후 부부관계	더좋아졌다	20.3±0.9	5.855	.026	14.9±2.7	.463	.637
	변화가 없다	21.3±0.9			16.0±2.0		
임신계획	예	20.9±0.8	2.780	.089	14.9±2.6	.860	.366
	아니오	20.3±1.0			16.3±1.5		
첫 접촉시기	1일이내신생아실	20.3±0.8	3.029	.098	17.3±2.1	10.254	.005
	1일이후신생아실	21.0±1.0			14.1±2.0		
기대했던 아기성별	남자아이	21.0±1.0	2.407	.118	16.5±1.3	.805	.463
	여자아이	19.0±0.0			14.9±2.9		
아기성별	상관없음	20.5±0.8			14.6±2.4		
	남자	21.0±0.9	3.029	.098	14.6±2.8	.840	.371
	여자	20.3±0.9			15.7±2.0		
수유계획	모유	20.8±1.0	.915	.351	15.7±2.6	1.561	.238
	분유	0.0±0.0			14.8±2.1		
	혼합	20.3±0.5			13.0±1.7		
유산, 조산 경험	있다	20.4±1.2	1.419	.268	15.9±2.9	.472	.632
	없다	20.8±0.8			14.7±2.4		
재태기간	30 ~ 32.6	20.5±2.1	.248	.783	13.3±2.3	1.857	.190
	33 ~ 35.6	20.8±0.9			15.4±2.5		
	36이상	20.3±0.6			15.1±2.5		
출생체중(g)	1499이하	21.5±0.7	3.589	.036	15.7±3.0	.890	.467
	1500 ~ 1749	20.0±0.8			15.7±3.5		
	1750 ~ 1999	20.3±1.0			16.0±1.0		
출생시 두위(cm)	20 ~ 24.9	20.0±0.0	.523	.631	15.1±2.5	2.979	.101
	25 ~ 29.9	20.7±1.0			16.1±2.8		
	30이상	20.8±1.0			14.3±1.9		
출생시 흉위(cm)	20 ~ 24.9	20.8±0.8	.216	.808	16.8±3.6	3.520	.077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정도(계속) (N=41)

일반적 특성	구 분	모유수유군(n=21) (M±SD)	t or F	p	인공수유군(n=20) (M±SD)	t or F	p
출생시 신장(Cm)	25 ~ 29.9	20.6±1.1	.403	.674	14.5±1.8	.562	.580
	30이상	21.0±0.0			15.1±2.5		
	39.9이하	20.5±0.6			15.3±2.6		
	40 ~ 44.9	20.8±0.9			15.4±2.5		
	45 ~ 49.9	20.4±1.3			13.7±2.5		

<표 6>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 정도 (N=41)

일반적 특성	구 분	모유수유군(n=21) (M±SD)	t or F	p	인공수유군(n=20) (M±SD)	t or F	p
연령(세)	25 ~ 29	110.7±15.8	3.142	.068	79.0± 0.0	.816	.459
	30 ~ 34	105.2±11.6			80.4±21.8		
	35 ~ 39	94.3± 2.7			91.2±15.5		
교육정도	고졸	99.5± 9.7	1.839	.191	87.7±10.1	.337	.569
	대졸이상	106.5±13.3			82.7±25.3		
가족월수입(만원)	100 ~ 199	111.0± 0.0	1.336	.288	75.3± 4.9	1.893	.181
	200 ~ 299	105.0±13.9			94.5±13.4		
	300이상	97.7± 7.8			80.9±24.5		
직업	있다	109.3±15.9	1.303	.268	0.0± 0.0		
	없다	101.7±11.0			85.2±18.9		
결혼기간(년)	0 ~ 4	103.8±11.7	1.264	.307	81.5±19.1	.861	.440
	5 ~ 9	106.8±14.3			86.0±25.5		
	10이상	91.0± 0.0			94.6±16.9		
분만후 부부관계	더좋아졌다	106.2±10.3	2.295	.146	91.8±13.8	3.618	.049
	변화가 없다	98.3±13.5			69.1±24.0		
임신계획	예	112.5±11.8	3.860	.040	82.7±19.5	1.977	.177
	아니오	94.0± 6.4			99.0± 5.3		
첫 접촉시기	1일이내신생아실	104.2±13.1	.142	.710	86.5±17.2	.038	.847
	1일이후신생아실	102.2±11.6			84.6±20.2		
기대했던 아기성별	남자아이	97.3±11.0	2.771	.089	98.5±16.8	1.924	.177
	여자아이	119.0± 0.0			86.1± 8.9		
	상관없음	106.5±11.0			76.4±26.0		
아기성별	남자	97.6± 9.6	6.132	.023	89.4±13.0	1.198	.288
	여자	109.2±11.8			80.1±24.2		
수유계획	모유	102.2±11.7	.499	.488	82.9±20.6	1.550	.241
	분유	0.0± 0.0			99.0±14.7		
	혼합	107.0±14.1			76.6± 0.5		
유산, 조산 경험	있다	98.2±11.7	.902	.423	91.2±18.3	2.272	.134
	없다	102.2±12.2			80.2±17.5		
재태기간	30 ~ 32.6	104.5±20.5	.343	.714	85.0±13.9	.000	.985
	33 ~ 35.6	102.0±11.5			85.2±20.0		
	36이상	108.3±13.3			85.2±18.9		
출생체중(g)	1499이하	108.0±24.0	.229	.875	83.1± 9.7	5.141	.011
	1500 ~ 1749	102.0±11.3			98.7±19.6		
	1750 ~ 1999	104.6±12.1			107.7± 9.8		
출생시 두위(Cm)	20 ~ 24.9	95.0± 0.0	.679	.520	85.2±18.9	.649	.431
	25 ~ 29.9	106.5±13.1			89.2±14.6		
	30이상	102.8±12.3			82.1±22.0		
출생시 흉위(Cm)	20 ~ 24.9	100.6±13.8	2.314	.128	89.6±10.5	.349	.562
	25 ~ 29.9	106.1±10.8			83.7±21.1		
	30이상	88.5± 3.5			85.2±18.9		
출생시 신장(Cm)	39.9이하	105.8±13.2	.356	.705	86.5± 6.8	.012	.989
	40 ~ 44.9	101.2±11.9			84.8±23.4		
	45 ~ 49.9	105.8±13.0			85.3± 7.1		

1,499g이하'(t=3.589, p=.036)에서 모아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인공수유군에서는 '아기와 첫 접촉이 1일 이내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진 경우'(t=10.254, p=.005)에 모아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군에서는 '계획된 임신인 경우'(t=3.860, p=.040), '태어난 아기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t=6.132, p=.023)에 모성역할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인공수유군에서는, '분만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t=3.618, p=.049)와 '출생 시 체중이 1750g~1999g이하'(t=5.141, p=.011)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모성역할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6>.

논 의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라는 조건 때문에 아기가 NICU에 입원함으로써 모아가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는데서 착안하여 저출생체중아의 수유형태에 따라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수유형태에 따른 모아애착으로 NICU에서 직접적으로 모유수유를 시키지는 못하지만 간호사가 대리 모유수유 하는 것을 선택한 어머니군이 그렇지 않은 인공수유 어머니군보다 모아애착정도가 높았다. 총 22문항 중 14개 문항의 애착점수에서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산모들은 자신의 신생아의 외모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생아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아기의 신체, 신체기능, 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을 한 산모는 대상자 41명 전원이었으며, 이는 Sung과 Kim(2005)의 연구에서 산모들이 자신의 신생아의 외모와 기능 확인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행동을 통하여 애착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기의 몸체를 만지고', '손끝, 손가락으로 아기를 만지는 애착행위를 나타낸 산모도 100%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유수유군은 아기를 끌어당기고, 접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평균 100점으로 나타나 인공수유군과 대조를 보였다.

산모와 신생아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는 동일시 과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애착을 발전시키는 행동의 일부일 뿐 아니라 신생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는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대해 만족스럽게 표현하는 항목이 평균 95점(100점 환산)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태변화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도 모유수유군에서 평균 95점(100점 환산)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 도구를 사용한 Cho(1990)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

가 성별 확인과 상태변화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하는 어머니가 모유수유군에서는 평균 80점(100점 환산), 인공수유군 평균 40점(100점 환산)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것은 산모의 54%에서 신생아에게 말하고 18%에서 이름을 불렀다는 Cropley et al.(1976)의 보고와 Lee와 Kim(1981)의 연구에서 신생아에게 이야기하는 산모는 4.9%, 이름을 사용하는 예는 한 예도 없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on(1983)의 연구에서 아기의 이름을 부른 산모는 한명도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모아애착이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애착측정도구가 외국에서 사용한 것을 번안한 것으로 한국의 산모들이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문화적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미흡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시각적 접촉은 애정적 결합이 발달하는 동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눈의 접촉은 신체적 접촉의 준비 단계로서 초기에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obson & Moss, 1970). Robson(1967)에 의하면 모아는 서로가 눈길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 어머니의 눈과 신생아의 눈이 교차해서 만나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취하는 어머니는 만삭아의 경우 많다고 지적했고, 또한 아기에 대해 말을 함으로써 눈뜬 것을 보려고 시도하는 어머니가 54%에 달한다고 했다. 본 연구의 경우 대상 산모들에서도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산모는 모유수유군에서 평균 100점(100점 환산), 인공수유군에서는 평균 80점(100점 환산)으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눈을 뜨도록 자극하거나 눈뜬 사실을 언급한 경우도 모유수유군의 경우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군에서 '분만 후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 모아애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만 후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증진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아기의 사랑스러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출생 시 체중이 1,499g이하'에서 모아애착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산모들이 NICU에서 아기의 생사여부에 집중하느라 더욱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수유군에서는 '1일 이내에 신생아실에서 아기와 첫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모아애착이 높게 나타나 초기 접촉이 모아애착과 모아상호 작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hakoo, Pershad, Mahajan & Gambhir(1994)의 연

구에서도 아기와 더 오래 떨어져 있을수록 모애착이 낮게 나타났으며, 초기 접촉이 시도된 경우에 산모의 애착이 높았고(Sung & Kim, 2005), 초기 모애상호노출이 있는 경우 모애착이 증가한다(Ahn & Kim, 200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고위험신생아의 산모에게 아기와 초기 접촉과 신생아 돌보기 활동과 정보제공을 하고 산모의 말에 경청, 정서적 지지, 기술적 안정을 포함한 지지적 간호활동을 한 산모에게서 상례적 간호만을 한 경우 보다 모애 접촉 시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가 많았고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Wang, 1985). 따라서 모애간의 초기접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산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애착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결혼기간과 산모의 현재 연령은 모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ee와 Kim(1981)의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첫 접촉 시에 애착행위에 대한 관찰'에서 임신횟수가 많고 신생아의 성별이 원하는 경우와 결혼기간이 긴 경우, 산모가 임신을 희망한 경우 및 모애의 접촉 소요한 시간이 긴 경우에 모애착 행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Cropley et al.(1976)의 연구에서도 결혼기간이 긴 경우 모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유형태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군 어머니가 인공수유군 어머니 보다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5개 문항 중 20개 문항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수유군 어머니들이 모유팩을 전달하기 위해 NICU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아기와 상호작용의 증가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Cassidy & Shaver(1999)의 연구에서 물리적인 접근근성이 모애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Walker, Crain & Thompson(1986)의 연구에서도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의 점수가 산후 3일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모유수유아 어머니들은 수유행위를 통해 모애상호작용의 증가로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별 모성역할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유 중 편안하게 아기를 안는 것, 아기가 배부른 것을 알아내는 것, 젖꼭지를 청결히 관리하는 것, 아기에게 적절한 수유량을 아는 것, 수유준비, 우유의 흐름을 적절히 하는 것, 아기 옷을 갈아입히는 것, 배꼽을 돌보는 것, 아기의 손톱을 깎아 주는 것, 아기가 딸꾹질 할 때, 아기의 대변형태가 정상인지에 대해,』와 같은 문항에서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보다 높은 모성역할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수유와 관련된 행동 중에서 평균 5점을 기준으로 『모유수유군은 수유 중에 아기를 편안하게 안는 것(3.2점), 수유 후 트림을 시키는 것(3.2점), 아기가 배고픈 것을 알아내는 것(3

점), 어떤 간격으로 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3점), 아기에게 적합한 수유형태를 결정하는 것(3점)』의 순으로 각각 나타나 수유 시 아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배꼽돌보기, 아기가 젖을 넘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기가 사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필요로 하는 돌보기 활동에는 자신감 정도가 낮은 편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 저출생체중아 부모들에게 추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의 차이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군에서 계획된 임신인 경우에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역할 획득과 관련, 임신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어머니의 경우 준비를 별로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보다 역할획득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Mercer(1985)와 임신을 희망한 경우에 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는 Lee(1999)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의 저출산시대에 임신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모유수유군에서 여아를 분만한 경우에 남아를 분만한 어머니보다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아를 분만한 어머니의 경우 산후 3일째 영아돌보기 활동에 관해서 더 많은 질문과 걱정을 나타냈으며(Mercer, 1981), 분만 후 4~6주 동안에 영아돌보기 활동에 관련된 어머니의 요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Sumner & Fritsch(1977)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저출생체중아가 입원으로 인하여 출생 직후부터 어머니와 분리되어 생활하므로 인생초기 모애접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모애착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수유를 통한 모애의 초기접촉이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발달환경을 제공한 것이 모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저출생체중아와 부모의 건강한 모성역할 이행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NICU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아기돌보기, 애착과 역할자신감을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준비교육과 지지를 제공하여 저출생체중아가 퇴원 후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의료인들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 비록 인생초기를 어머니와 떨어져 한 두 달 이상을 보내게 되는 저출생체중아라고 할지라도 모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호사에 의한 대리 모유팩 모유수유라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NICU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에 의한 대리모유팩 모유수유를 실시한 후에 분유만을 수유한 인공수유 어머니와의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두 종류의 수유형태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을 비교함으로써 인생초기의 모유수유를 통한 긍정적인 모아관계의 수립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2004년 11월 2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병원의 NICU에 입원한 1,000g 이상 2,000g미만의 저출생체중아 어머니들 중 연구에 동의한 41명(모유수유군 어머니 21명과 인공수유군 어머니 20명)으로 저출생체중 외에 기타 합병증이나 기형이 없는 아기를 분만한 산모로서, 산후 합병증이 없고, 다른 질병과 모유수유 장애요인이 없으며, 수유형태와 관계없이 아기를 규칙적으로 1주에 1회 이상 방문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퇴원하는 주중에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적용하였다. 연구도구로 모아애착 관찰도구와 모성역할자신감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유팩 모유수유군과 인공수유군 어머니간의 모아애착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유수유군 어머니의 모아애착 정도가 인공수유군 어머니보다 높았다.
-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군은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군보다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았다.
-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정도에서는, 모유수유군에서는 '분만 후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와 '출생 시 체중이 1,499g이하'에서 모아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인공수유군에서는 '아기와의 첫 접촉이 1일 이내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모아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의 정도에서는, 모유수유군에서는 '계획된 임신인 경우', '태어난 아기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 모성역할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인공수유군에서는, '분만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와 '출생 시 체중이 1750g~1999g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모성역할자신감이 더 높았다.

이상에서 내린 결론은 모유수유군 어머니의 경우, 비록 간호사에 의한 모유팩 모유수유이지만 모유수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기와의 접촉기회를 더 오래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모아애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성역할자신감으로 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NICU에서부터 적극적인 모아상호작용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모유팩 모유수유를 계획함으로써 퇴원 후 애착형성 및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유팩 모유수유를 위한 계획적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실무, 연구, 그리고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저출생체중아 부모를 대상으로 간호사들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나 교육 등의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 병원의 한정된 대상자들을 통하여 실시한 연구이기에 보다 많은 대상자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모아애착과 같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도구는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1,000g 이상에서 2,000g이하의 저출생체중아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의 측정을 퇴원 당시로 하였다, 그러나 모아애착이나 모성역할 자신감 등은 영아기 이후까지 계속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영아기 이후까지 추적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ffonso, D. D., Hurst, I., Haller, Y. K., & Lynch, M. E. (1992). Stressors reported by mothers of hospitalized premature infants. *Neonatal Network, 11*(6), 63-70.
- Ahn, Y. M., & Kim, M. 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Neo-maternal Exposure, and Maternal Attachment, Maternal Self-esteem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the Mothers of NICU Infants. *J Korean Acad Nurs, 35*(5), 798-809.
- Bhakoo, O. N., Pershad, D., Mahajan, R., & Gambhir, S. K. (1994). Development of mother-infant attachment scale. *Indian Pediatr, 31*, 1477-1482.
- Bowlby, J. (198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2nd Ed. London: Pelican Books, 13-17.
- Bull, M., & Lawrence, D. (1985). Mother's use of knowledge during the postpartum weeks.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14*(4), 315-320.
- Cassidy, J., & Shaver, P. R. (1999). *Handbook of attachment*

- (eds.), Guilford. 44-67.
- Cho, S. H. (1990).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ception of the newborn and attach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Cropley, C., Lester, P., & Pennington, S. (1976).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Current Practice in OB. & GY. Nursing. New York: The C. V. Mosby Co, 16-28.
- Hangson, S. J. (1989).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first three postpartum months.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18(2), 116-22.
- Hong, C. O. (2003). *Pediatrics*. Seoul : Daehan Printing & Publishing Co. Ltd.
- Jang, Y. S. (2004). *Effects of workbook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perceived stress level,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breast feeding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Kim, G. Y. (2000). *Effects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by the Taegyo perspective prenatal cla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J. (1997). The study of the maternal identity and fetal attachment behavior by pregnant women. *Seong Shin College of Nursing Thesis Collection*, 7.
- Klaus, M. H., & Kennell, J. (1982). *Parent-Infant Bonding*. 2nd ed. New York: The C.V. Mosby Co.
- Kwon, M. K., & Han, K. Ja. (1991). A study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maternal identity in mother-infant dyads of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J Korean Acad Nurs*, 21(1), 79-88.
- Lee, I. H. (199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n mood and maternal confidence of premature's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J. H., & Kim, J. H. (1981). A study of the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J Korean Acad Nurs*, 11(2), 9-19.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 Res*, 30(2), 73-77.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 Res*, 34(4), 198-204.
- Paik, M. L. (1990). *A study on maternal confidence of care activity and the gratification & the problem of the transition of maternal role in premature and full term infant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 for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Robson, K. S. (1967). The role of eye-to-eye contact in maternal-infant attachment. *J Child Psychol Psychiatry*, 8(1), 13-25.
- Robson, K. S., & Moss, H. A. (1970). Pattern and maternal Attachment. *J Pediatr* 77, 976-985.
- Son, B. H. (1983). *Effects of roming-in on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to newbor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Sumner, G., & Fritsch, J. (1977). Postnatal parental concerns: the first six weeks of life. *JOGN Nurs*, 6(3), 27-32..
- Sung, M. H., & Kim, M. K. (2005). A study of the effects of behavior contact in early mother-infant attachment. *J Korean Acad Nurs*, 35(5), 842-849.
- Taylor, L. S. (1981). Newborn feeding behavior and attaching. *MCN Am J Matern Child Nurs*, 6(3), 201-202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Stability and change. *Nurs Res*, 35(2), 68-71.
- Wang, I. S. (1985). *Effects of Supporting care to the high risk in risk infant mother's on the perception of their newborns and attach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Wong, D. (2003). *Pediatric nursing*. 6th ed. New York: CV Mosby Co, p 384.